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놀라운 부흥운동

(요나 3장 1 - 10절)



니느웨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급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사건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저들이 이와 같이 회개를 한 것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에 동참을 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여러번 나타나 있지만 니느웨 처럼 한 도시가 완전하게 복음으로 돌아온 역사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이같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먼저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인하여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바울 한 사람 깨달음에 인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만 바르게 헌신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됩니다.

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3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하나님 말씀은 능력과 활력이 있어서 사십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말이 온 니느웨에 퍼져서 모든 백성들은 배웃으로 갈아입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굉장한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찌면 소극적인 태도로 말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은지라”(5절).

### 1.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요나는 자격 상실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신다고 해도 요나는 하나님께 그 어떤 말로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1-2절).

똑같은 명령이 요나에게 반복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요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창 12장).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아는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자기 계획대로 일을 처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머무르렀지만 하나님은 사십년이 지난 후에 떨기나무 속에서 그를 불러주시므로 이스라엘의 대 사역을 모세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습니다.

### 2. 두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두 번째 주신 사명은 첫 번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요나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증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합부로 증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옳은 일

니느웨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10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니느웨는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교만이 있고 우상이 있고 악한 것이 꼭 찬 도시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니느웨의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난 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했고,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성실하게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둘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셋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곧 바로 배웃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넷째, 니느웨 백성들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악한 것과 강포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내일(29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은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여 온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내일 오후 2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1교시 이종운 목사의 시편 강해를 시작으로 개강한다.

본 교회 부설 교회갱신연구원(원장: 윤찬오 장로)은 지난 2월부터 두 달여간 뜨거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계 신문에 광고 하며 안내 팸플릿을 발송하고 개별 전화를 하는 등 개강을 위한 단반의 준비를 하여왔다. 12년의 긴 세월동안 우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봉사의 손길로 진행되어온 목회자세미나는 이번 학기도 변함없이 많은 봉사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들 봉사자들은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을 좀 더 편안히 모시기 위해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쓰며 육신의 양식에 이르기 까지 세세한 부분을 챙기며 준비하고 있다.

지난 24학기동안 등록 연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하는 교계의 권위 있고 전통 있는 세미나로 자리 잡은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이번 학기에도 많은 목회자들을 모신 가운데 은혜로이 진행되어 금번 학기 주제인 '회개 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큰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 제25학기 목회자세미나

제 1 교시 (오후 2:00 - 3:30)	날짜	제 2 교시 (오후 3:50 - 5:20)	
시편 연구 이종운 목사 (서울교회)	3월29일	초대교회의 회개운동과 교회부흥	박수암 박사(장신대)
	4월5일	휴강(식목일)	휴강
	4월12일	선지자들의 회개운동과 민족부흥	이태훈 박사(국제신학대)
	4월19일	어거스틴의 회개와 신학적 발전	유해룡 박사(장신대)
	4월26일	중세교회의 회개운동과 종교개혁	김흥기 박사(감신대)
	5월3일	요나단 에드워드와 미국의 부흥	오덕교 박사(합신대)
	5월10일	웨슬리의 회개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	조종남 박사(명지대)
	5월17일	1907년 회개운동과 한국교회의 부흥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5월24일	오늘의 교회갱신을 위해 긴급히 해야 할 것	이종성 박사(학술원)
	5월31일	회개와 부흥의 신학적 이해	이수영 박사(새문안 교회)

# 2004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개강

금주 중 강의일정에 따라 모두 개강

성도와 이웃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전,후반기 두 학기씩 갖는 열린 프로그램의 2004년도 전반기 일정이 금주 중 모두 개강해 10주간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평소 성경공부를 비롯한 좋은 강의를 듣기 원했으나 시간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이번 열린 프로그램은 좋은 배움의 장이 되

고 신앙의 재충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직 등록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은 속히 등록하여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열린 프로그램의 자세한 시간표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되고, 등록은 사무국에서 하며 등록비는 과목당 10,000 원이다.

### 2004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 과목	룻기	월, 오전 10:00-11:00	이성득 목사	602호
	갈라디아서	화, 오후 7:30-8:30	이태훈 목사	602호
	전도서	목, 오전 6:00-7:00	오정식 목사	602호
	예레미야	금, 오전 6:00-7:00	이규정 목사	602호
교사양성반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김운호 목사	609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오정식 목사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2:00	한상은 목사	602호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2:00	이용식 목사	101호
상시 개설	요리문답부	주일, 오후 12:40-1:30	한상은 목사	601호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00-2:00	김재진 목사	603호
	전도학교	주일, 오후 2:30-3:40	이규정 목사	802호
	결혼예비학교	주일, 오후 3:20-4:20	이규정 목사	403호
1년4학기 개설	친양대양성반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 2004년도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4월3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

우리교회가 민족의 75%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오는 4월3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거행된다.

장차 졸업과 함께 임관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게 될 이들이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들을 통하여 진중에서 함께 생활 할 사병들이 복음화 된다면 이들은 옥도에 뿌린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세례 받는 모든 생도들이 말씀 앞에 거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한다.

#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 기도회

오늘 10시 40분 601호에서

오늘 고등부에서는 고3학생들, 학부모, 교사, 결연자들이 함께 고3과 수험생을 위한 결연기도회를 갖는다. 올 1년 대학입시의 취업을 위해 힘 써야 할 고3학생들과 수험생을 기도로 돕고 격려하기 위한 결연기도회에 많은 학부모와 결연자들의 참석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올 1년 고3학생들이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 벌써 잊으셨나요

매주 월요일 오전 교회 건물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온갖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 어려운 이웃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아껴 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아끼고 정리하면 교회당도 깨끗해지고 이웃 사랑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물은 반드시 8층 식당(만나홀)에서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며 성도간의 교제도 되니 더욱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해충도 예방하기 쉬워 지니 위생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금주의 성구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물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요18:25-27)

As Simon Peter stood warming himself, he was asked, "You are not one of his disciples, are you?" He denied it, saying, "I am not." One of the high priest's servants,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challenged him, "Didn't I see you with him in the olive grove?" Again Peter denied it, and at that moment a rooster began to crow. (NTV John 18:25-27)





최난수 권사  
(2교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모진 고난을 묵상하니 가슴이 저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의아들 예수님을 마땅히 형벌 받을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 지라도 나의 자비와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과 나누지도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내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채찍이 되어 예수님의



거룩하신 어깨에 상처를 내었고 내 죄가 가시 면류관이 되어 예수님의 이마에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모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내놓을 것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증보자가 되신 것처럼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증보기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된 저희들 저마다 저야할 십자가가 있는데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증인으로 들어 써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대속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 고난주간, 청년의 고민



노홍훈 성도(청년부)

요즘 젊다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이 왔어!" 라는 말은 일반적인 '좋다'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모든 지성, 감성, 의지가 느낌이 온 바로 그 대상에 온통 몰입되어 있다는 표현이며, "느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고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생의 나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저이지만, 고난 주간에 맞는 나의 고민은, 부끄럽게도, 바로 이 '느낌'이 왜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피를 깊숙이 찌르는 가시, 거친 대못이 질긴 피부를 뚫고, 뼈를 부수며 나무 십자가에 박히는 고통, 수 시간동안 지속되는 이 극심한 고통. 이 고통이 왜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아무리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연상해도 그 고통이 전달되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그 당하셨을 고난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가... 하는 고민이 매 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로서, 그 고난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은 꽤나 괴로운 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칼로 자해하며 이 고난을 체화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천의 용기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 방법이 예수님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최근 나온 '그리스도의 수난'이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얘기에, 그러면 그 영화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느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영화 개봉일을 기다려도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이 고난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하나 더 주시기를, 그리하여 그 고통을 통해 나의 죄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마땅까지 살아가는 깊은 회개를 경험하는 고난 주간에 회개를 바라는 것이 저런 삶, 청년의 소망입니다.

신동기(편집부)

장로가정 탐방 - 성준경 장로가정편

## 주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을 가기 위해 빠른 길도 쉬운 길도 택하지 않으시고 옳은 길이라면 돌아서라도 가시는 성준경 장로님! 요즘은 안식년을 맞이하여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신앙의 재충전을 하시는 중이다

성 장로님은 양반 가문과 재산을 자랑하는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가산을 모두 쓰신 선친 때문에 가난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문과 논어를



먼저 배우고 6.25때에는 서당에서 공부했으며 아버지의 엄한 가르침으로 유교적 가풍 가운데 교육을 받았다.

1970년, 직장 동료였던 장낙희 권사님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슬하에 기운, 가원, 기연 삼 남매를 두었다. 성 장로님은 아버지께서는 때때로 회초리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며 가르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생각하였다.

그리고 1974년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으면서 "금년부터는 우리 모두 교회에 나가시다." 라는 말 한마디가 성 장로님 가정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매주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한 주간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을 뿐 구원의 확신은 없었다고 한다. 안수집사가 됐어도 가정이나 회사에서처럼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여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기 시작하시며 이종운 목사님에게 인도하셨다. 예배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주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내 발로 나간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먼저 믿으신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었던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성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6년 장로 장립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금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장로님이 되셨다.

늘 겸손하시며 겸소하신 장로님은 매사가 성경적이어서 가정에서도 그 강직함 때문에 타협이 힘들다고 장낙희 권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신다.

가정의 가훈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의 계대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옮기시는 장로님의 가정의 모습이 훈훈하고 아름답다.

첫째 아들 기운씨는 한국 과학기술원에서 마지막 박사코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둘째 기원씨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정성국 전도사의 사모로 복음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새대이다. 성 장로님께서서는 민족 복음화의 기수가 되는 서울교회를 꿈꾸시며 전도의 큰 뜻을 두고 밤낮 기도 하시며, 안식년이지만 임마누엘 찬양대 알토 파트 성경공부 교사로 수고 하신다.

장로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98장으로 세상이 힘들 때 혹 낙심 될 때 진정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위로 받으시며 새 힘을 공급받으신다.

겉모습은 점점 왜소해지고 빈약해 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성 장로님은 길도 속도 풍성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서울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이종운 목사님의 인도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신다고 소박하게 웃으시는 장로님의 미소는 예수님을 닮았다.

